

“가정교육 약화, 교육활동 침해 원인”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 혁신 TF팀', 도내 교원 2992명 대상 설문조사서 교권 보호관·교권전담 변호사 도입·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지원 등 제안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교육활동보호 혁신 TF팀 최종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활동보호 혁신 TF팀'은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을 앞두고 도내 교장 및 교사를 중심으로 지난 3월 출범했다.

TF팀은 그동안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도내 교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도 및 해외 사례 검토, 교원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에 대한 운영 결과를 내놨다.

도내 교원 299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교원들은 가정교육 약화와 학생권리 확대가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의 주요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교육활동 침해 대응과 관련해서는 법률상담이나 무료 변호사 선임 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TF팀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권보호관·교권전담 변호사 도입 등 전담 인력 확대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운영 지원 △교육활동 보호 조정 지원단 구성 △인사팀 지원을 통한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교원치유센터의 지원 범위 확대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생·학부모 연수 강화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에 대한 홍보 확대 △법률 개정 등을 통한 학교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의 교

육지원청 업무 이관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전북교육인권증진기본조례 제정에 따른 교권보호 방안 강화를 위해 최근 전북교육인권센터에 배치할 교권보호관과 교권전담 변호사 배치를 위한 정원을 확보하고, 채용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성환 전북교육인권센터장(직무대리)은 “조례 제정 후 어느 때보다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교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TF팀이 마련한 제안을 중심으로 학교현장에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은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아 15일 전주 신흥중학교를 방문, 현장 교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선생님의 숭고한 노력, 마음 깊이 감사”

서 교육감, 스승의날 맞아 전주 신흥중 방문 감사의 마음 전해

“선생님의 숭고한 노력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아 15일 전주 신흥중학교를 방문, 현장 교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방문은 신흥중 학생자치회가 준비한 스승의날 행사에서 교육감이 동참한 것으로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갑작 이벤트가 됐다.

서 교육감은 신흥중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상항국을 지켜본 뒤 무대에 올라 중학교 시절 은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서 교육감은 “모교에 오니 중학교 시절 새벽에 일어나 신문 배달하고, 쉬는 시간에 매점에서 빵을 파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조달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툼는다”면서 “중학교 시절 저의 어려운 가정형편을 아시고 저의 굶은 등을 토닥여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이 계시기에 학교가 있다. 매 순간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주고 계신다”면서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은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은성 기자

특히 서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노래에 담아 전했다. 직접 기타를 치며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를 부른 것. 한편 신흥중 학생들이 뽑은 '존경의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 교육감은 “스승에 대한 감사가 많이 사라지는 시대에 어떻게 우리 후배들이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선생님들을 위한 행사를 준비했다는 것이 매우 고맙다”면서 “선생님들은 여러분이 잘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 항상 노력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는 따뜻한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은성 기자

고교학점제 대비... 일반고-대학 연계 주말강좌 운영

도교육청, 6월 17일까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일반고-대학 연계 주말강좌 프로그램이 본격 시작됐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5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5주간 일반고와 도내 대학 3개 학교가 참여하는 주말 강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일반고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적성과 능력이 맞는 진로와 학업설계 탐색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전북교육청과 지자체·지역 대학이 협력하는 사업으로 참여 대학은 전주비전대학교와 전주기원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이며 주말을 활용해 예술·체육 및 기초 직업 교육(가사·살림) 강좌 집중 이수 중심의 강좌를 실시한다.

2022학년도 1학기 12개 강좌 138명이 참여한 이후 2023학년도에는 총 24개 강좌에 각 강좌별 매주 토요일 4시간씩 총 5주 20시간으로 진행되며, 도내 45개 일반



지난 13일 진행된 일반고-대학 연계 주말강좌. (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고에서 334명의 학생들이 참여한다. 특히 전북교육청의 지원(일부 대학 재원)으로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고, 강좌 이수 학생에 대해서는 창의적체험활동 자율 또는 진로활동으로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개설된 강좌는 주요 프로그램의 특성상 지도 교원 수급 활동 공간 등의 한계로 단위 고등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으로 전문성을 갖춘 대학학과에서 강의와 실습이 진행된다.

2023학년도 대학별 강좌를 살펴보면 전주비전대학교는 치유생, 방송영상디자인, 방송다큐, 신체생애에너지, 건축, 응급 구조화, 기계과, 간호학부, 보건행정학, 글로벌호텔관광, 전주비전대학교는 SNS 영상소프트웨어, 경영회계정보, 메타디자인개요, 식품영양, 운동재활, 임상병리, 호텔제과제빵, 학생근사교육, 호텔외식조리, 미용건강, 원광보건대학교는 글로벌호텔관광 외식조리, 임상병리 관련 등이다. /정은성 기자

“스스로 행복을 선택하는 인생 살라”

박진배 전주대 총장, 고교 방문 스승의날 특강서 향후 글로벌 대학 선정 위해 지역사회 지속 방문

전주대학교 박진배 총장은 지역 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행복을 넓히는 가운데 스승의 날을 맞아 지역의 고등학교(상산고) 방문하여 특강을 진행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12일 오후, 상산고등학교에 방문하여 진행된 특강은 학생 400여 명과 교사들이 강단에 참석한 가운데 김명환 상산고 교장의 소개로 시작되었다.

박진배 총장은 ‘행복과 성공, 4차 산업혁명과 로봇, 인공지능과 드론’ 등의 주제로 학생들에게 강연을 펼쳤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시되는 분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었다.

특히 박진배 총장은 행복과 성공이란 주제에서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발표하며 많은 학생에게 울림을 주었다.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여러분은 모두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며, 참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행복은 어디에든지 있으니 행복 하려는 마음을 먹고 스스로 행복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우수한 인재들의 의대 졸업 현



상이 심한데 의사뿐 아니라, 우리 사회는 과학기술계 등 다양한 영역에 리더들이 필요하다며 나에게 맞는 행복한 인생의 길을 찾아갈 길 당부하였다.

박진배 총장은 “긴 강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이 반짝이는 눈빛으로 끝까지 집중하며 사진을 찍는 등 열심히 듣고 기록하는 학생들의 모습과 강연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다가와 질문을 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대학교 박진배 총장은 글로벌 대학의 선정을 위해 도내 지자체와 기관, 고등학교, 각종 협의회 등 지역사회를 지속해 방문하며,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축산 탄소중립 지역과 ‘맞손’

전북대 LINC 3.0 사업단, 도내 5개 기관과 협약 체결

축산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전북지역 5개 기관 및 기업이 손을 맞잡았다. (관련기사 9면)

전북대학교 LINC 3.0사업단(단장 송철규)은 15일 장수군에서 도내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북대 LINC 3.0사업단 장수군 담당자와 최후석 장수군수, 김현철 장수군 농업기술센터장, 성수정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 이하고 멜리엔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전북대학교의 축산 탄소기술 연구성과와 사업화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이슈가 되고 있는 축산 탄소중립 분야 전문지식 공유 및 지역사회 발전 정책 공동 개발에 착수한다.

저탄소형질 한우 축균 조성, 탄소저감 기술 및 모니터링 검증을 통한 지역 저탄소 한우 브랜드를 개발하고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구 기반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탄소

한우 성장 기반 조성과 함께 한우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윤석 부단장은 “탄소발자국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 탄소중립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었던 건 멜리엔스 대표이자 전북대 LINC 3.0네트워크 농생명IC 센터장인 이하고 교수와 그의 연구팀이 기호 위기 대응을 위한 10년간의 연구로 기술사업화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에 협력하고, 저탄소 한우 브랜드 육성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북대학교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교원창업 벤처기업인 멜리엔스(주)는 세계 최초 축산 탄소저감 기술 및 모니터링 기술(특허기술) 등을 개발해 저탄소 축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이창진 연구교수

목재공학회 ‘국제우수논문상’

전북대학교 이창진 연구교수(목재응용과학과)는 최근 열린 2023년도 한국목재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국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어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창진 연구교수는 한국목재공학회에서 국제학술지에 우수한 논문을 게재, 학회 및 학문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목재 우수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연구교수는 문화재청으로부터 22억6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목조건축문화재 수리용 특대재의 건조기술 및 합수용 측정 모델 개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이창진 연구교수는 “한국목재공학회의 국제우수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수행 중인 연구를 통해 목재공학회 학문 및 산업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원광대, 식품 분야 현직자

직무토크 콘서트 성료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 대학일자 리플러스센터와 임실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가 협업한 직무토크 콘서트가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13일과 5월 11일 이루어진 이번 직무토크 콘서트는 식품 분야 현직자를 초청해 고등학교 재학생 100여 명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품 분야 현직자와 한국치즈과학고교 재학생들 간에 소통의 장으로 진행된 직무토크 콘서트는 식품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경력을 쌓은 현직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직무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가 제공됐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도교육청, 16~19일

상반기 교무실무사 직무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6~19일까지 4일간 전주 치명자1성지 평화의전당에서 도내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무실무사 12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

하루 30명씩 총 4회에 걸쳐 운영되는 이번 연수는 실질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교무실무사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직장 내 학교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임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동료 간 만남을 통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업무 지식을 공유하는 등 직무 수행에 자신감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중등교육과 유효선 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무실무사들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학교 구성원과 더불어 행복한 마음으로 근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 설명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5일 창조나래(별관) 시청각실에서 2023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남은 학교 공간에 체육관, 주차장, 도서관 등 문화·체육·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를 살리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시·군 교육지원청 및 자치단체 업무관계자, 학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부 교육시설과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안내하고, 학교복합시설 우수사례를 공유해 학교장과 지자체의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8월 중 학교복합시설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일몰하는 교육청-지자체 학교복합시설 업무협약 체결 및 희망 지역의 사업계획서를 신청받아 8월중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업 선정 기준으로는 설치 대상 부지의 입지 적정성 및 기존 학교시설과의 관계, 늘봄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등 교육정책과의 연계성, 사업추진 의지 및 지자체·교육청간 협력 의지 등이 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40개교 총 200곳에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상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해 학교의 교육·돌봄환경을 구축하고, 지역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